

우선 간단한 표로 채권의 이자지급방식에 따른 분류도 이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에 따른 분류		
단리채	양곡채	금융채는 다 있음
복리채	국민주택채권	
이표채	회사채	
할인채	통화안정채권	
거치채	도시철도채권	

이표채(Coupon Bond)란 위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채권의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일정한 기간(보통 3개월, 간혹 6개월도 있음)이 경과하면 채권에 붙어 있는 이표(Coupon이라고도 하며, 이자지급표를 줄여서 이표라 함)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일정한 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으니 1년만기라고 한다면 1년에 4번 이자를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된 채권(이하 '회사채')이 대부분 이표채형식으로 발행되어 유통되는 채권으로 간단히 액면가로 채권을 발행하고, 표면이율에 따라 연간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일정 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무이표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와 달리) 이자를 만기전에 지급하지 않고 만기와 동시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채권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와 같이 채권보유를 통하여 만기시까지 발생하는 현금에 대한 흐름을 현재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이자율과 채권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일정한 수식에 대입하여 채권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할인율이 높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할인율이 낮으면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면...

이표채 : 일정한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무이표채 : (일정한 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채권

할인율 : 채권의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로 시장의 이자율과 채권의 이자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